



###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 ④ 핸들은 내가 잡고 운전은 부처님이...

##### 길 위의 불평분자

“아빠, 웬일이세요? 저 차가 반칙해서 들어왔는데 화도 안 내시네요.”

중학생 아들이 신기한 듯 말한다. “응? 아, 아빠가 변했지?” 하며 K씨는 미소를 지었다.

예전에는 운전할 때 화를 많이 내곤 했었다. 출퇴근 시간에 길이 심하게 막히는 곳을 지나다 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쌓였다. 그러다 갑자기 끼어드는 차들을 보면 참기가 어려웠다. 저절로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증언거리게 되곤 했다. 때로는 경적을 심하게 울리거나 차 안에서 주먹을 흔들며 보이기도 했다. 양보하기가 싫어 밀어 붙이다 접촉사고가 날 뻔한 적도 많았다. 그런 때는 차에서 내려 상대방을 쫓아가 뭐라 퍼붓고 싶은 마음을 억지로 가라앉혔다.

주말이나 평일에 지방에 가게 되면 고속도로가 종종 정체된다. 누구나 시간이 아까운데도 지기만 빨리 가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교통규칙을 위반하는 차들을 보면 그렇게 알미를 수가 없었다. 고속도로는 위험해서 자칫 대형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신경이 곤두섰다.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던데 왜들 규정을 안 지키는지 정말 짜증이 나고 화가 나서 견디기 어려웠어요. 운전이 고맙습니다. 고맙.”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쌓여 피곤했다. 외국에서는 심하면 총까지 쏜다더니 그 심정이

다 짝잡이 되었다.

##### 길 위의 보살되기

어느 날 도반에게 침착하고 평온하게 운전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운전도 역시 마음 다스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음 다섯 가지 방편으로 노력하고 있다. 우선 출발하는 때가 중요하다. 출발기도를 하는 것이다. 운전대를 잡고 시동을 걸면서 마음 깊이 ‘오늘도 무사히 다녀

러있기 때문에 평정심을 유지해야 한다.

셋째, 반칙운전자들 만나게 되는 경우, 가장 힘들다. 그러나 역시 화를 낼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되었다. 모든 것은 인과 응보. 상대가 잘못하면 그 과보는 그의 몫이다. 그런데 왜 내가 불필요한 업을 짓나. 굳이 힘들게 욕하거나 화내면서 업을 지을 필요가 없다. 내 할 도리만 하면서 마음 속 부처님을 부른다. 넷째, 가능한 양보한다. 끼어드는 차 혹은 차선 변경하려는 차가 있다면 무조건 최대한 양보해 준다. 이것은 쉬운 ‘보시’이다. 정 양보하기 싫으면 ‘내가 지금 해주었으니 다음에 나에게 해주겠지. 내가 급할 때를 대비해서 지금 하자.’ 하는 마음을 가진다. 간혹 K씨도 급히 끼어들어야 할 때가 생긴다. 예전엔 그냥 상황 봐서 했다. 이제는 속으로 ‘관세음보살. 자, 어느 차가 오늘 복을 지으시러나. 양보하실 보살 차 나오세요.’ 하며 평안한 마음으로 시도한다. 결과는 신기했다. 거의 모든 경우에 쉽게 양보를 해 주었다. 마지막, 도착하면 시동을 끄며 반드시 회향기도를 한다. ‘무사히 도착하여 감사합니다. 운전 잘해 주신 부처님.’ 이제 K씨는 화 내지 않고 평정심으로 보시하는 마음으로 운전하는 정진을 계속 하고 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마음 편하게 운전하니 몸의 피로까지 놀라게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 길 막힌다고 화내면 상황 달라지나?

신호위반 · 끼어들기... 결국 손해는 나에게 오는 걸

“나 하나 버리면 길 아닌 것 없다” 명심해야

오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내가 운전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 계신 부처님이 운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한다. 사실 사고 없이 다녀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러나 전에는 충분히 감사하지 못했었다.

둘째, 가다보면 길이 정체될 수도 있고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화를 내고 조조해진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냉철히 인정하는 것이다. 일일이 꼬달리면 결국 나만 손해다. 내 마음의 평안은 나에게 달

##### 나의 길은 어떻게

K씨는 자기 중심으로 손해 보지 않으려 했고 상대방에게 화를 내며 길을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에 매이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며 가게 되었습니다. ‘나 하나 버리면 길 아닌 것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깨달음을 향한 길, 도(道)는 오느라 길을 어떻게 가는가부터 시작됩니다. ■황수경(동국대 선행과 강사)



### 부처님 감사합니다

## 빈자일등, 참회의 등불(상)

이종구 경남 마산시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정구업진언을 외며 구업을 참회할 때면, 다시는 구업을 짓지 말자고 솔하게 다짐합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또다시 구업을 짓는 자신의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있는 모포견조임을 떠올립니다.

평소 제 아무리 깨끗하게 이부자리를 사용하려고 노력해도 막상 햇볕에 모포를 말렸다가 뉘뉘 짝을 지어 모포의 양끝을 붙잡고 털어내면 언제 그런 먼지가 묻었는지 밀가루 포대를 털듯이 먼지가 풀풀 날리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평소엔 마음을 올바르게 깨끗하게 유지하려 해도 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 먼지가 켜켜이 쌓여있으리라는 생각을 하며 마음 닦는 공부에 가일층 노력을 기울이겠노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마음에 쌓인 먼지를 털어 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는 동료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그것이 다름 아닌 지난날 저 자신의 모습이기 에 남의 일처럼 지나설 수가 없어, 아직도 어둠과 미망 속에 헤매고 있는 동료수용자들에게 회한 빛이라도 전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래 참회의 글을 열고자 합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저는 회색 담장과 쇠창살로 둘러쳐진 이 부자리의 공간에 갇혀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아 느껴져서 했습니다.

범죄의 세계와는 거리가 먼 지극히 평범하고 착실한 사회인의 한 사람으로 살아왔던 저였습니다. 그랬기에 살인이라는 끔찍한 죄를 저질러 무기수로서 끝도 없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는 사실이 남의 일로만 여겨질 뿐 도저히 자신의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뜻하지 않은 엄청난 불행을 당했을 때 사람들은 흔히 그것을 ‘운명의 장난’이라고 표현합니다. 저 역시도 제게 닥친 이 불행을 저주받은 운명의 장난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들에게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할 일을 일삼으며 살아왔다면 그것을 당연한 응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왔다고 자부하고 있었기에 저 자신이 애꿎은 운명의 희생양이 되었다고 밖에 달리 생각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든 불행의 원인을 운명의 탓으로

만 돌리자 그럴수록 제게 닥친 현실은 더욱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자포자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일 제가 맹구우목의 인연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 모든 것이 연기의 원리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임을 깨닫지 못했다면 지금쯤 저는 구제불능의 문제로 희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쌓아왔던 악업의 실체를 깨닫고 난 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경기도 일산사에서 농사를 전직으로 삼아 오신 부모님 슬하에서 2남 2녀의 셋째 아들로 태어나 풍족하지는 않아도 크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던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에는 아버님의 농사일만으로는 집안을 꾸려나가기가 벅차 부득이 어머니께서 서울로 야채 장사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교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 아버지의 농사와 어머니의 장사를 도왔습니다. 비록 몸은 힘들고 고달프지만 오늘 흘린 땀 한 방울이 내일의 미소가 되리라는 믿음을 아래 열심히 노력하여 무사히 고등학교

를 졸업하였습니다. 그 뒤 군에 입대하여 3년간의 국토통일위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귀향하였습니다. 제가 군복무를 마치고 고향에 돌아와보니 조상 대대로 농사만을 지어오던 고향 땅에 개발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땅값이 오르는 틈에 농사밖에 모르는 사람들의 손에 팔도 꾸지 못했던 큰돈이 쥐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순박하기만 했던 고향 사람들의 마음에 사치와 향락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아침에 재벌 2세라도 된 듯 사치와 방탕의 늪에 빠져들었다가 가진 돈을 순식간에 모두 날려버리고 고향 땅을 떠나야 했던 이웃들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그 무렵 한 기업체에 입사한 저는 화업과 집안일을 병행하며 땅 흘러린 지난날을 생각하며 열심히 근무했습니다. 곧 결혼을 하여 두 아이까지 둔 단란한 가정의 가정으로서의 본분이 충실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결혼을 한 뒤 직장 동료들과의 술자리도 마다한 채 집과 직장을 오가다시피 하던 저에게 1994년 12월 28일은 결코 잊을 수 없는 불행을 안겨 주었습니다. (계속)



그림: 문병성

### ‘평범한 가정’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날 찾아온 불행의 그늘에...

## 신 행 계 시 판

**한국불교대학 관음사 참종은유치원 개원**  
영남불교대학 관음사가 지난해 12월 한국불교대학으로 새롭게 명칭을 변경했다. 한국불교대학 관음사는 3월 5일 참종은유치원을 개원한다.

2월 14일 인가를 받은 참종은유치원은 6, 7세 아동을 대상으로 원아 모집을 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개원한 참종은어린이집은 3~5세 아동을 모집하고 있다. (053)472-0256

**정토사 만일염불결사회 염불정진법회**  
정토사 만일염불결사회가 3월 17일 염불정진법회를 봉행한다. 오후 8시~11시.

이번 정진법회에서는 아미타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칭명염불,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관상염불, 정토세계를 관하는 관념염불 등을 하게 된다. (031)723-9797

**서울 법장사 건봉사 사찰순례**  
서울 법장사가 3월 14일 오전 7시 강원도 고성 건봉사로 정월사찰순례를 떠난다. 건봉사는 조선 세조대왕이 불교 원당으로 정하고 여실각을 건립한 성지이다. 동참회비는 3만원. 한편 영산불교학교 교리반 38기 강좌는 15일~7월 19일까지 운영된다. 불교예절

에서부터 교리, 부처님의 일생, 참선, 계율 강좌 등으로 진행된다. (02)971-0303

**법원사 33인 고승초청 법회경 대설행회**  
대구 법원사가 3월 7일부터 33일 동안 전국 고승대덕들을 모시고 <법회경> 대설행회를 봉행한다. 3월 7일 임재하는 <법회경> 대설행회는 첫 날 <법회경>의 중대의를 시작으로 28일간 제1품에서 제28품까지 강의하고 30일째에 다시 한번 <법회경>의 중대의를 살펴본 후 이틀간 법회경 약찬계를 설하는 것으로 33일간의 대설행회를 이어 갈 예정이다. (053)766-3747

# 불교명상지도자양성



보현 김목자 박사 (세계불교명상센터 원장)

- (1)가정과 직장에서 중생의 고민을 덜어주는 정신적 지도자가 되기를 희망하시는 분
- (2)부처님의 깨달음을 체험하여 생사고뇌에서 해탈하시기를 희망하시는 분
- (3)신체허약 · 정신 빈곤 · 가정불화 등으로 고민, 신심건강을 희망하시는 분

- ① 일반과정 : 건강 · 두뇌개발 · 단주 · 금연 · 비만클리닉 - 제 1차 3개월
- ② 전문과정 : 전성성불로 생사해탈을 목적하시는 분 - 제 1차 3개월
- ③ 지도자과정(선착순 20명 모집) : 명상센터를 개원, 이웃과 사회에 봉사하시기를 희망하시는 분 - 제 1차 3개월

◆ 일시 : 2007년 3월 24일(토) 오후 3시 개원 (매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철야정진,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정진 : 자유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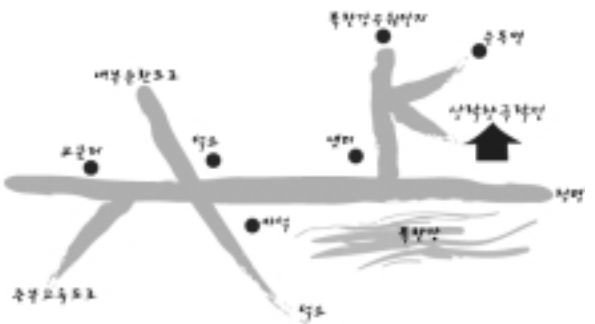
◆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대성리 산 185 상락향수도원 ☎031)584-0657, 010-8700-3619, 011-447-1122(원장)



명법스님 (몽골 다시요령)

### 세계불교명상센터 교통안내

- 기차 : 경춘선(청량리역 출발), 대성리역 하차, 서북 2km
- 버스 : 청량리역 앞 출발, 1330번(청평행) 765번(대성리행), 1115번(잠실-대성리) 대성리 민박촌 앞 하차
- 택시 : 마석 1만원, 청평 1만 2천원



## 세계불교명상센터